

最後까지 鬪爭하자

[東亞日報] (1945년 12월 29일)
國民大會準備會 委員長 宋鎮禹氏 談

우리가 가진 半萬年 歷史와 지나온 半世紀동안 民族 解放을 위한 血鬪는 世界 政局에 대하여 朝鮮民族을 完全 解放하여 自主獨立시키지 않으면 東洋의 眞正한 和平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敎訓하였고 따라서 朝鮮民族은 他民族의 支配나 託治 又は 國際公管을 받을 民族이 아니라는 것도 天下가 周知하게 된 事實이다. 그러므로 카이로 포츠담 國際會議에서도 朝鮮獨立을 宣稱케 된 것이다. 如斯한 國際信義를 無視하고 世界史的 發展을 阻害하는 朝鮮의 託治 云云은 斷然코 排擊치 않으면 안된다. 우리는 男女老幼를 莫論하고 三千萬이 一人도 빠짐없이 一大 國民運動을 展開하여 反對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. 우리의 正當한 主張을 爲하여 이 疆土 위에 있는 同志는 피한방울이 남지 않도록 決死的 勇鬪로서 우리가 當當히 가져야 할 民族主權을 찾아야 할 것이다.